



## 【목차】

1 부. 소나무 장학회 소개

2 부. 철학-과학반 프로그램 개요

3 부. 프로그램 세부 안내

부록 1. 지원자 숙고사항

부록 2. 자주 묻는 질문

# 소나무장학회

공익정신을 체화한 사회적 리더의 양성



Public  
Interest (공익)  
Networking (연대)  
Empathy (공감)

## 1 부. 소나무 장학회 소개

장학회의 일반적인 설립 목적은 미래에 사회에 보탬이 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경제적으로 조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성과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지요. 그러나 소나무 장학회는 그 두 요건을 장학생 선발에서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장학회는 **장학생 프로그램을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선발의 최우선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소나무 장학회가 여타 장학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미래의 인재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든, 일반적인 장학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돕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소나무 장학회는 남을 돕기 이전에, 근본적인 층위에서 본다면, 나의 행복을 위한 단체입니다. 장학회 운영위원들은 남을 돕기 위해서 이곳 소나무 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곳을 운영하지요.

장학생을 선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도 이러한 공익사업이 결국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성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최우선 선발기준이 지원자의 프로그램 이해도인 것입니다. 물론 지원자들에게서는 아직 이런 말들이 잘 이해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1 부에서는 장학회 운영위원들이 소나무 장학회를 만들기까지 품었던 **총 세 가지 물음**을 통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 물음 1. 인생에도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소나무 장학회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이** 모여 만든 공익단체입니다. 공익단체라고 하면 언뜻 “남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요. 그러나 소나무 장학회 운영위원들에게 왜 이 장학회를 운영하느냐고 물어보면 심중팔구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좋아서. 장학회가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즉, 결과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흔히 “옳은 일, 착한 일, 좋은 일”로 여겨지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설명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옵니다: “공익단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자기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인군자도 아니고 무슨 내 행복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한다고 그러느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지만 직장인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과 내 행복을 위해서 장학회를 운영한다**」는 말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이 되면 보통 두 가지 문제상황에 직면합니다. 첫째로 삶이 너무 바빠집니다. 학창시절과 비교해서 책임져야 할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업무에 쫓기고 야근에 치이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30 대를 지나 40 대가 되면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노후 준비 등 점점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지면서 의무감과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숙고할 심리적인 여유를 갖기가 좀처럼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근시안적이고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만족**만을 쫓게 되지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유형의 행복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인생의 중장기 계획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채워지고, 그 사이사이를 잠깐의 소소한 만족으로 **건디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비교할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학창시절에는 적어도 모두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공유하지만 직장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전문직과 비전문직이 나뉘고 원청과 하청이 나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는 것을 ‘말이 아닌 체험으로’ 겪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무슨 일 하세요?”라는 질문을 먼저 묻고, 친구를 만나면 턱없이 차이나는 연봉에 놀라기도 하지요. 막연하게 돈·명예·권력에 관한 얘기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서 내 또래의 사람과 **돈·명예·권력을 놓고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대단한 명예, 더 높은 권력을 향한 욕심이 점점 불어나 **직장생활에 전념**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수준으로는 그걸 갖지 못한다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기 쉽지요. 여기서도 문제는 첫번째 상황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 공부하게 보겠다는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시야**로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특별히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60 대 이후 직장을 은퇴하고 나면 어떨까요? **사회생활의 종결기**에 접어들면 그동안 **‘삶의 의미’**를 구성해왔던 것들이 점차 덧없고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늙어감에 따라 자의로든 타의로든 **사회의 틈바구니 밖으로** 나오고 보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생활을 지탱했던 혈기는 빠져나가고 몸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그 결과 삶의 소소한 만족들은 줄어가고 그만큼 신체적인 고통과 불편은 늘어만 갑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사건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지요. 죽음을 앞두고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욕망해온 것들은 그만큼 욕망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어떤 욕망의 만족이든 죽음 앞에서는 결국 부질없는 것일까? 삶의 의미는 뭘까? 죽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욕망이 있을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이유	
①내면의 욕심 : 돈·명예·권력을 향한 욕심 & 열등감	②외부의 환경 : 책임감 & 의무감이 커지는 환경
그 욕심과 열등감을 조성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벗어나면 결국 부질없어짐	삶의 압박과 피로에 비례해서 점점 즉각적이고 편리한 만족만을 행복의 전부로 여기게 됨

이렇게 우리 인생을 통시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갉아먹고 자기를 허무로 빠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인생학교’라는 곳을 만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도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학생으로 남아 평생 배워야 한다.**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는 법,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서하는 법 등등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학교는 그저 아이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가 교육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은 지금 **평생교육**의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중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수업에는 7 살짜리 아이 옆에 50 살 어른이 앉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거시적으로** 정말 추구할 만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일지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시적으로** 수많은 삶의 주제들-진로, 직장생활, 결혼, 인간관계,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을 소재삼아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소나무 장학회는 그와 같은 **인생의 공부를 위해 조직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운영하는 것이 내 인생과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인생에도 공부하고 필요하고, 우리는 모두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 물음 2. 그렇다면 뭘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인생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묻게 되지요.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인생에 관한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당연히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고요. 그러므로 공부의 주제는 마땅히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행복을 공부해보세요”라고 주문한다면 뭘 하실 것 같나요? 우리들은 보통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혹은 느끼게 해 줄 것 같은) **‘욕망의 대상’**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스스로에게 “나는 언제 행복한가?”를 묻는 것이지요. 이 질문은 다음처럼 **욕망의 대상**을 떠올리도록 우리를 이끍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과 있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즐길 때, 남들은 가기 힘든 장소에 가거나 값비싼 물건을 가질 때, 의미가 있는 일을 할 때. 그리고 이 대상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다음처럼 자신의 **가치관**을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관계가 중요하다, 소소한 행복이 우선순위다, 돈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한다, 내 삶의 의미는 이 직업에 있다. 이처럼 행복을 공부한다고 하면, 내가 욕망하는 것들(혹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가치관을 되새겨보는 작업을 머릿속에 떠올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공부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 욕망의 대상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그 자체를 공부하면서 **욕망의 유형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 대상들을 소유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어떤 유형의 욕망을 추구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유형의 욕망들과 **미처 깨닫지 못한** 유형의 행복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행복을 향해 달려나가기 전에 먼저 행복 그 자체에 대해 공부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즉 인간에 관한 나의 **무지(無知)**를 변수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행복을 공부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나무 장학회는 행복을 **철학으로 공부**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고려하면서 한 주제를 근본적으로 파고드는 정신 활동이 바로 ‘철학’이니깐요.

	물음	실천
일상적 접근	나는 언제 행복하지?	①내 욕망의 대상들을 쭉 나열 ②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철학적 접근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①욕망 그 자체를 연구하여 욕망의 유형을 정리 ②추구할 만한 욕망의 우선순위를 검토



소나무 운영위원들은 인간의 다양한 욕망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욕망을 발달시킬지 검토하기 위해 철학을 공부합니다. 쉽게 말해서, 철학 공부를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나무 장학회는 철학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자기 내면으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은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단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공부는 **행복의 사회적 조건에 관한 공부**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나무 장학회는 철학 공부의 다음 단계로 사회를 공부합니다.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깊이 공부**해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설명이 원론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공부할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기계발을 하는 편이 이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내 능력과 여건을 개선하는 쪽이 행복해지는 데에는 쓸모가 있다는 것이지요.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단, **근시안적인 시야** 안에서만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사회라는 곳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실천한다고 해도 나의 영향력은 미미하고 사회가 변하는 속도는 느리기 그지없지요. 그 결과, 사회에는 신경을 끄고 자기계발에만 몰두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사회적 조건이 악화되어 나의 행복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파괴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서야 사회에 관심을 갖고 **내가 뭐라도 실천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곳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강점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 장학회의 두 층위의 실천	
【철학 공부】 : 행복을 위한 내면 만들기	【사회 공부】 : 행복을 위한 환경 만들기
「나의 기다란 인생 전체를 고려할 때 어떻게 나의 욕망을 성숙시켜야 내가 장기적으로 행복할까?」	「나를 둘러싼 환경 전체를 고려할 때 어떻게 사회의 성숙에 참여해야 내가 장기적으로 행복할까?」
↓	↓
「철학-과학반」 장학생 프로그램	「사회-역사반」 장학생 프로그램 *추후 진행 예정

### 물음 3. 공부의 비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소나무 운영위원들은 여러 철학자들의 행복론을 공부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추구는 공익과 대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치한다는 것이었지요. 즉, 단지 내 행복을 위한 욕망을 추구했을 뿐인데 그 삶이 결과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철학자들이 **어리석은 욕망**과 **지혜로운 욕망**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욕망에서 비롯한 사익추구는 공익과 대립하지만, 지혜로운 욕망에서 비롯하는 사익추구는 공익추구와 합치한다고 설명하지요. 소나무 장학회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욕망을 바로 **‘공익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소나무 운영위원들은 철학 공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공부로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사회 현안의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나무 장학회는 일순간의 혁명적인 변화나 어떤 이상향에 대한 추구보다도,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활동 영역에서 그 실천을 지속하는 사람을 **‘사회적 리더’**라고 부르지요.

소나무 장학회의 표어		
공익정신을 체화한	사회적 리더의	양성
철학 공부를 통해 지혜로운 욕망을 체화한	사회 현안의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시민의	공부 공동체를 통한 평생교육

이렇게 **「공익정신을 체화한 사회적 리더의 양성」**이라는 소나무 장학회의 표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익정신을 체화한 사회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소나무 장학회가 생각하는 **공부의 비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철학을 공부하고 사회를 공부하는 것이 될 때, **나의 행복을 위한 공부**는 곧 **공익정신을 체화한 사회적 리더가 되기 위한 공부**와 등가가 되지요.

이러한 공부의 비전을 나누고 확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곳 ‘소나무 장학회’입니다. 장학회라는 형식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이러한 **공부의 비전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장학생들은 이곳의 공부가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된다면 **인생의 귀한 자원**을 하나 얻는 셈이 되겠지요. 장학회 입장에서는 함께 공부하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얻는 것이고요. 이렇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장학회’라는 틀은 소나무가 선택한 **공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 2 부. 철학-과학반 프로그램 개요

소나무 장학회의 공부는 철학공부와 사회공부의 두 층위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지요. 이에 맞추어 소나무 장학회는 「철학-과학반」과 「사회-역사반」으로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철학-과학반」 장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소나무 장학회의 철학과 공부비전**을 알아가면서, 이곳의 공부가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프로그램 수료 이후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장학회는 **공익실천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생 시절에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더라도, 학창시절을 벗어나 사회 초년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느라 눈 앞의 과제를 처리하기에도 바쁜 일상을 보내기 쉽습니다. 사회의 공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점점 삶에서 잊혀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대학 졸업 이후 직업으로서의 공익활동에 전념하는 경우에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미한 보상에 지쳐 행복한 삶과는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익실천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장학회는 이 어려움의 원인을 **공익과 사익의 분리**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는 것을 선택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자기이해의 지평이 자기-중심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은 자기 행복의 중요한 원인으로 타인의 행복이나 사회의 공익을 진지하게 사유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공익실천은 자기 행복을 위한 도구로는 선택되지 못하지요. 그렇게 공익실천은 우리의 생활 안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장학회는 이 어려움을 **공익과 사익을 통합하는 공부**를 통해서 풀어오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총 세 가지 절차로 요약됩니다. ①자기이해: 먼저 자기이해의 지평을 자기-중심적인 수준에서 사회-관계적인 수준으로 고양시킵니다. ②자기검토: 그럼으로써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개인 내면의 차원에서 사회 관계의 차원까지 확장시켜 검토합니다. ③자기교육: 마지막으로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기획합니다. 즉,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선택과 실천을 할 것인지 기획합니다. 6개월 간의 「철학-과학반」 과정은 이 세 가지 절차를 자기 혼자서가 아니라 타인과 교류하며 함께 밝아 나가자는 소나무 장학회의 초대입니다.

## 개요 1. 프로그램 내용: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9 월	10 · 11 월	12 · 1 월	2 월
공부 단계	1 단계. 자기이해	1 단계. 자기이해	2 단계. 자기검토	3 단계. 자기교육
주 교재	윤리학 예시	스피노자 『에티카』 1 부 및 2 부	스피노자 『에티카』 3 부 및 4 부	그룹 멘토링
부 교재	스피노자 『지성개선론』	『장희익의 자연철학 강의』 『삶의 나무』 『몸의 인지과학』	『트랜센드』 『스피노자의 뇌』 『느끼고 아는 존재』	『연민은 어떻게 삶을 고통에서 구하는가』 『아픔이 길이 되려면』 『애착과 심리치료』
핵심 주제	나의 기다란 인생 전체를 고려할 때, 어떤 욕망을 어떻게 발달·교육해야 내가 장기적으로 행복할까?			
최종 목표	공익(타인 행복)과 사익(자기 행복)의 통합하는 나의 『윤리학』 쓰기			

### ① 나의 『윤리학』 쓰기: 왜 윤리학인가?

소나무 장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는 것**을 선택하고 **실천**한다.」 소나무 장학회가 이 전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작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복에 관한 나의 믿음이 과연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따져본 다음에도 기존의 믿음을 고수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반대로 더 이상 그 믿음을 고수할 수 없다면 인생을 다시 계획하자는 것이지요. **윤리학**이란 좋은 삶(good life) 곧 ‘행복’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분과입니다. 그래서 나의

『윤리학』을 책 한 권으로 써본다는 것은 이렇게 행복에 관한 내 믿음을 따져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정리해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본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입니다.

윤리학 쓰기를 제안하는 이유는 **이 작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지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길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더 확장된 관점에서** 보면 볼 수 있는 불행들을 지금 당장의 시야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행복에 관한 다른 관점을 배우고 참조함으로써 내가 지금 과연 걸어갈 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의심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길을 이미 걷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술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고 납득**할 수 없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절망,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성급한 좌절과 포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막연한 믿음으로 왠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왜**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논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나무 장학회는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대학(원)생들에게 윤리학 쓰기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대학(원)생 시기는 사회생활을 목전에 둔 **마지막 학창시절**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 삶을 검토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자, 삶의 중간 점검이 **가장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윤리학』 쓰기가 필요한 이유	
[가정 1] 불행할 확률이 더 높은 삶을 살고 있다면	[가정 2] 행복할 확률이 더 높은 삶을 살고 있다면
<b>삶의 재구성:</b> 행복에 관한 왜곡된 믿음을 수정하고 숨겨져 있던 불행의 원인을 발견하여 새로운 삶을 다시 기획할 수 있음	<b>삶의 지속력:</b>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힘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강건하게 지속할 수 있음

## ② 스피노자의 『에티카』 읽기: 왜 철학자 스피노자인가?

그러나 소나무 장학회는 막연하게 “너의 윤리학을 한 번 써봐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윤리학을 쓰는 데에 참조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를 제시하지요. 장학생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줄 참조사례**가 바로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텍스트입니다. 나름의 윤리학을 저술한 철학자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소나무 장학회가 그 중에서도 유독 스피노자를 참고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피노자는 **행복을 향한 삶의 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에티카』 저술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의 『에티카』를 따라가다 보면 행복의 추구가 **공익의 실천과 결과적으로는 통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으로서 윤리학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옳고 그름의 규범 문제를 연구하는 **정의 윤리학**이 한쪽에 있다면, 좋고 나쁨의 덕(virtue) 문제를 연구하는 **행복 윤리학**이 다른 한쪽에 있지요.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이 중에서 행복 윤리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행복을 향한 삶의 길을 **3 단계 프로세스**로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1 단계가 **자기이해**라면, 2 단계는 **자기검토**이고, 마지막 3 단계는 **자기교육**이지요. 덕분에 우리는 막연하게 나의 『윤리학』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3 단계 프로세스에 맞춰서 철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윤리학』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행복추구와 공익실천이 통합된다는 것은 이 3 단계를 실천할 때 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

행복을 공부하는 3 단계 프로세스	1 단계. 자기이해	자기-중심적인 수준을 넘어서 타자-관계적인 수준에서 인간과 자기를 이해
	2 단계. 자기검토	욕망의 유형들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 욕망의 좋음(good)과 나쁨(bad)을 검토
	3 단계. 자기교육	지혜로운 욕망 생활을 위해서 나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지 기획

스피노자는 17 세기 과학혁명의 여명기에 활동했던 네덜란드 철학자입니다. 그 시기 사람들은 중세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신이 무(無)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영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부여해준 소명과 목적이 있다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이해하였지요.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러한 인간론에 반대합니다. 그는 '**관계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존재이론**을 구성하지요. 우리는 **공부의 1 단계**에서 스피노자의 관계론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 존재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해볼 것입니다. 이 작업으로써 합리적 자기이해의 철학적 밑바탕을 다지는 것이지요.

또한 그 당시에는 **윤리적인 삶**을 '자기 욕망을 억누르면서 교회가 가르치는 성스럽고 올바른 행위'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진실된 욕망들이 어딘가 저급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격하되어 '윤리적인 삶'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러한 윤리론에 반대합니다. 그는 욕망을 '**능동욕망**'과 '**수동욕망**'으로 나누어 검토한 다음,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욕망을 따르는 것이 곧 윤리라는 **새로운 윤리이론**을 구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의 2 단계**에서 능동과 수동이라는 개념쌍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 자신의 욕망을 검토해볼 것입니다. 이 작업으로써 합리적 자기검토의 철학적 밑바탕을 다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 당시 **인격의 성숙**은 '욕망의 **금욕**'과 '신에 대한 **신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오히려 욕망을 인격 성숙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신앙이 아니라, **지성의 이해**를 통해서 한 인간의 욕망을 능동욕망으로 고양시킬 때 우리 인격이 성숙된다고 설명하였지요. 스피노자는 인격이 미숙한 사람을 '**무지자**'라고 부릅니다. 무지자는 공익과 무관하거나 대립되는 사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반대로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현자**'라고 부릅니다. 현자는 공익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기 사익을 추구하지요. 소나무 장학회에서는 이것을 스피노자의 **새로운 교육이론**으로 읽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의 3 단계**에서 현자의 사익추구 지혜를 참조하면서 우리 자신을 실제로 교육해볼 것입니다. 이 작업으로써 합리적 자기교육의 철학적 밑바탕을 다지는 것이지요.

### ③ 생물학-심리학-정신의학 공부: 왜 과학 공부인가?

프로그램의 중심 축은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참조하여 나 자신의 『윤리학』을 쓰는 것이지만, 철학 공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변적인 성격이 짙어서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철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난해하고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나아가는 **과학 공부의 도움**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학생들은 『윤리학』을 쓰는 3 단계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과 과학**을 공부합니다: ①물리-생물학, ②심리학, ③정신의학. **물리-생물학**을 통해 물질의 존재 원리와 함께 물질의 일종으로서 생명의 존재원리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 **심리학**을 통해서는 수많은 생물 중 중 하나로서 인간의 존재원리를 공부하지요. 마지막으로 **정신의학**을 통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능성에 대해 공부합니다.

프로그램의 주 교재인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공부의 철학적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과학 도서로 구성된 부 교재는 모두 17 세기에 쓰인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오늘날 21 세기의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을 참조함으로써 장학생들은 『에티카』를 단순히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할지** 연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상의 작업을 6 개월 안에 완벽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장학생 프로그램은 일회성 대외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나에게 맞는 **공부 공동체를 찾기 위한 입문 과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요. 그래서 장학생들은 6 개월 동안 소나무 장학회의 철학과 비전을 충분히 탐색한 다음, 소나무 장학회가 자신과 잘 맞다는 판단이 선다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장학회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과 과학을 활용해 자기이해-자기검토-자기교육을 하는 작업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 개요 2. 프로그램 대상: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인가요?

### ① 개인적 사익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익과 사익을 통합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 소나무 장학회는 어떤 지점에서 보면 무척이나 이상해 보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한다고 하였지요.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 행복을 위해 공부한다는데** 왜 장학회는 거기에 돈을 주고 나아가 무상으로 교육환경까지 제공하는 것일까요? 돈을 벌려면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노동이나 근로와는 다르게, 행복 추구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알아서 할 일일 텐데 말이지요. 그러므로 지원자들께서 '**소나무 장학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문을 품어보아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한 사람의 **사익 추구**에 장학회는 어째서 **공적 자원**을 투여하는 것일까? 이유를 창출하는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뿐이라면, 그럼에도 내가 장학회 후원자들의 장학금을 받고, 장학회 운영위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을 만한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한 명의 사인(私人)으로서 개인적으로 자기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과 **소나무 장학금과 철학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사회적 자원을 제공받는 장학생의 활동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행복하지?” 등과 같은 **사적 층위의 물음**으로만 공부한다면, 그런 공부는 **개인적인 기질과 취향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는 **사회적 자원을 투여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생활이나 사적 욕망과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이지?” 등과 같은 **공적 층위의 물음**으로만 공부한다면, 그런 공부는 **도덕적인 이상과 사변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도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실천 동력이 생겨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요.

이러한 두 극단이 갖는 모순점 때문에,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인(私人)**이자 동시에 사회적 자원을 제공받는 **공인(共人)**으로서 소나무 장학생은 **사익과 공익을 통합하는 물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학회에서 공부하게 될 철학자 스피노자는 **어리석은 사람의 사익추구**는 공익과 대립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사익추구**는 공익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익추구의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은 사익과 공익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나무 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익을 지혜롭게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철학-과학반」의 공부는 **상호교육**의 차원에서 공익적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교육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설득력 있는 참조로서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학생들은 6개월 동안 자기를 이해하고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교육하는 그 과정과 논리를 타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학생들은,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상호-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장학생에게 공부란 무엇인가?	
【문제 1】 사익만을 추구하는 공부	【문제 2】 공익만을 추구하는 공부
사회적 자원을 제공받고 공부하면서 사익만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순	공익실천을 위한 공부를 한다면 정작 실천력이 결여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순
【해결 방법】 사익과 공익을 통합하는 공부	
<p>지혜로운 사람의 사익추구는 공익과 일치한다.</p> <p>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실현하는가?</p> <p>바로 이것을 공부해보자!</p>	

## ② 인생의 가치관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공부 공동체를 찾고 있는 분들

: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 결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생리적인 쾌락, 사회-경제적인 부와 지위, 대인관계에서의 명예와 인정받음, 이 세 가지는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얻고 난 뒤에 빠르게 익숙해지는 **쾌락적응현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 그 행복은 이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취업준비나 직장생활이 요구하는 일들을 숨가쁘게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단순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 지난했던 취업준비와 고단한 직장생활을 **보상해줄 만한 자극적인 것들**에 매몰되기 쉽지요. 특히 학교를 완전히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돈, 지위, 권력, 명예에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지인이나 친구들을 만나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나의 처지를 그들과 **비교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잃기도 무척 쉬워지지요. 삶의 의미는 점차 망각되고 그만큼 지속 가능한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공부 공동체에 참여하고 소속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즉,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사회생활의 온갖 위기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위한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 ③ 자기 삶을 그냥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지식을 근거로 성찰하고 싶은 분들

: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욕망하므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등과 같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참되고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앎을 위해서는 철학과 과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나 과학자의 도움 없이 **자기 생각으로만 혼자서 하는 성찰**은 기존에 학습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자신에 대한 편견만 강화할 위험도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은 어떤 믿음이나 생각에 대하여 **그 이유와 근거를 따져 묻는 활동**입니다. 역사적으로 철학은 신화와 종교에 대한 믿음을 따져 물으면서 탄생하였고, 과학은 그러한 철학이 17 세기를 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와 과학자는 무엇을 말하든 그 말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논증하는 형식**으로 말하지요. 철학자는 순수 논리를 통해 자기 주장을 논증한다면, 과학자는 실제 증거를 통해서 논증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편견이나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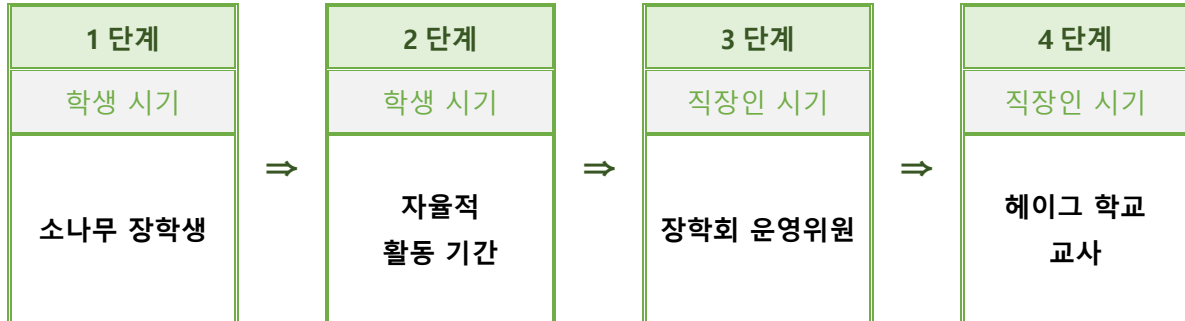
철학과 과학의 주제는 수없이 다양하지만, 소나무 장학회에는 그 중에서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과 과학을 공부**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철학과 과학의 성격 덕분에, 우리는 철학자나 과학자가 주장하는 인간론을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참되고 타당한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 물음으로써 **비판**을 할 수도 있지요. 장학생들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해한 **인간에 대한 지식**을 기존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비교하고 맞춰보는데 사용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 ④ 넓고 얇은 취미 독서가 아니라, 좁고 깊은 철학-과학 공부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 소나무 장학회에서는 비록 **겉보기에는 일상 수준의 삶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물을 캐내는 광부들처럼 정공법으로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많은 철학자들을 걸핌기 식으로 넓고 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라는 철학자 한 명**이라도 **우선적으로** 좁고 깊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중 인문학 서적에 익숙한 독자들은 소나무 장학회에서의 공부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철학과 과학의 지식들을 **자기성찰**과 **자기이해**에 사용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장학생들 본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나무 장학회는 이 작업을 조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곳에서 장학생들은 좋은 **참조**가 되어줄 다른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 말이지요.

### 개요 3. 프로그램 목적: 소나무 장학회는 왜 철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소나무 장학생 발달 로드맵】

#### ① 소나무 장학회 운영위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소나무 장학회는 '공익실천'과 '공익정신을 체화한 사회적 리더 양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공동체(장학재단)입니다. 소나무 장학회는 「써빙프렌즈인터네셔널」이라는 또 다른 공동체(NGO)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인원커뮤니케이션즈」라는 이웃 공동체(기업)와 연대하고 있지요. 이러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소나무 장학회는 2013 년 이래로 지금까지 공익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 년 간 소나무 장학회는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장학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로만 운영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후원기금을 오직 100% 목적사업(소나무장학금)으로만 사용한다」는 소나무 장학회의 철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질과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나무 장학회는 설립 이래 이 철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장학회의 철학과 비전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들의 새로운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장학생들은 6 개월 동안 장학회의 철학과 비전을 공부한 다음, 수료 시점에는 계속 장학회 활동을 이어갈지 아니면 중단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수료를 기점으로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장학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요.

장학생 과정을 수료한 다음의 장학회 활동은 **취업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20 대 시기에서 최우선 가치는 경제적 자립이기 때문에, 장학회에서는 먼저 직장에 취업한 이후에 운영위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되기 전까지 장학생들은 ①**운영위원회의 공부모임에 참석**하거나, ②**후배 기수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장학회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한 이후에는 운영위원으로서 장학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 ② 헤이그 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소나무 장학회는 현재의 장학재단 수준을 넘어선 그 이상의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건전한 쾌락주의자였던 에피쿠로스는 ‘정원’이라는 이름의 공동체에서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여성, 노인, 노예와 더불어 철학을 연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은 소나무 장학회가 미래에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소나무 장학회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며,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 자연스럽게 공익을 실천한다」는 공통의 이해를 매개로 공부-공익실천 공동체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곳은 누구나 들어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단단하고도 느슨한 관계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이름이 ‘헤이그 학교’입니다.

소나무 장학회와 헤이그 학교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형식은 상이합니다. 양자 모두 다음의 내용을 단체의 본질로서 갖지요: 「①철학-과학 공부를 통해서 인간과 행복을 이해하고, 행복을 이해한 만큼 자기 삶에서 실천한다. ②사회-역사 공부를 통해서 한국사회와 공익을 이해하고, 공익을 이해한 만큼 사회 안에서 실천한다.」 그러나 소나무 장학회가 이 내용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장학재단이라는 형식에 담았다면, 헤이그 학교는 동일한 내용을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식에 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나무 장학회는 공익실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실천가들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은 지속 가능한 활동의 최소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소나무 장학회의 철학과 비전을 설명하고 공유하는데 있어서 장학재단의 형식으로는 그 대상이 소수의 대학(원)생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학교)의 형식을 사용하면 그 대상을 청소년, 비(非)대학생 청년, 직장인, 비(非)직장인 중년, 은퇴자 등등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공부에 목마른 사람들 전체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지요.

그러나 헤이그 학교가 정말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콘텐츠와 실력 있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무료 교육에 장학금까지 주는 장학회와는 반대로 헤이그 학교에서는 유료로 수강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장학회는 장기간에 걸쳐 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미래의 학교 교사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철학-과학반」 프로그램은 바로 이 대장정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원자들께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지원 동기가 과연 이곳과 적합한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3 부. 프로그램 세부 안내

	나의 『윤리학』 책 쓰기	주간 공부 보고서	윤리학 공부 모임
장소	온라인 (장학회 카페)	온라인 (장학회 카페)	오프라인 (장학회 사무실)
시간	격주 금요일 밤 12 시까지 제출	격주 금요일 밤 12 시까지 제출	매주 일요일 10:30 ~ 15:00
내용	6 개월 동안 긴 호흡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윤리학』 책 한 권 쓰기	1. 주 교재 분석 2. 부 교재 분석 3. 삶의 규칙 검토	1. 스피노자 세미나 2. 식사 3. 부교재 세미나 4. 모임 기록 글쓰기 (일요일 자정까지 제출)

많은 장학회들이 지원자의 경제 수준과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지만 소나무 장학회는 선발에서 그 두 요건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그 대신 본 프로그램의 성격과 취지에 지원자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장학회는 미래의 공동체 구성원을 모집하고 양성한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 아래에서 장학생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일”을 하자고 운영하는 곳이 아닌 거지요.

하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장학금만을 바라본 채로 ‘일단 지원하고 그 뒤는 합격한 다음에 생각하자’는 방식으로 지원하곤 합니다. 그러나 활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나무 장학생 과정은 합격하는 것보다 수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으로 장학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학생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격 이후 무사히 수료까지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에게 장학금 뿐만 아니라 이 철학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까?”**를 숙고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본 교육과정은 강의 방식이 아니라 **대학원 세미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소수 정예로 장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여하는 장학생 한 명 한 명이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의 중간 점검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부하려는 다른 장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자께서는 자신의 일정상 에세이 작성과 세미나 참석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활동 1. 내 이름으로 『윤리학』 책 한 권 쓰기

기본 목차	1 부	나의 자기이해
	2 부	나의 자기검토
	3 부	나의 자기교육

①**나의 자기이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내 이야기**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꿈꾸는 일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self-image)을 만든다는 거지요. 반면에 소나무 장학회는 가장 먼저 **인간에 대한 공부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스피노자 철학을 바탕으로 물리-생물학(부교재&심화연구도서)을 활용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비로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조명해볼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가져온 **자기 자신에 대한 상(像)을 재해석**해보는 것이지요.

②**나의 자기검토**: 여러분들은 자기 삶이 윤리적인지 아닌지 성찰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공과 사를 구분한 다음, 공적인 행위는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만, 사적인 행위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윤리적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종교 나쁜의 문제**로 환원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윤리적이다’의 근본 의미를 **‘나 자신에게 좋다’**로, ‘비윤리적이다’의 근본 의미를 ‘나 자신에게 나쁘다’로 재정립하지요. 우리는 이 윤리관을 바탕으로 심리학(부교재)을 활용해 현재 내 삶을 지배하는 사적인 욕망들과 감정들을 **윤리적으로 검토**해볼 것입니다.

③**나의 자기교육**: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시나요? 고전적으로 철학자들은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철학공부를 **‘건강한 마음을 위한 정념의 치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스피노자도 마찬가지로 철학의 역할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온갖 정념들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장학생들은 이러한 스피노자의 공부론을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의 정신의학(부교재)을 참조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중심으로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교육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문제를 고민해볼 것입니다.

## 활동 2. 주간 공부 보고서

보고서 구성	1 장	바탕 이론: 주 교재 분석
	2 장	응용 이론: 부 교재 활용
	3 장	실천 연습: 자기 삶의 규칙 만들기

①**주 교재 분석**: 1 장은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꼼꼼하게 읽는 장입니다. 주차마다 해설자료와 함께 독해 분량이 주어질 것입니다. 『에티카』에서 제시하는 교훈들 몇 가지를 표면적이고 단편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이 고전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 응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전을 **자기 윤리학을 쓰는 작업에 활용**하려면, 이 고전이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논리적 구조로 다루는지를 상세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학생들은 '**장학생 활동의 기본**'이 되는 1 장의 작업을 꼼꼼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②**부 교재 활용**: 2 장은 부교재와 심화 연구до서를 참조하여 스피노자 『에티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장입니다. 스피노자 『에티카』는 17 세기에 쓰였다는 시대적 간극 때문에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내 윤리학을 쓰는데 활용할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요. 장학생들은 이 지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오늘날의 과학책들을 참고하여 스피노자 『에티카』 활용방안을 연구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 장의 작성은 **창의적 독해**가 요구됩니다. 다른 장학생들이 2 장을 어떻게 쓰는지 참조함으로써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 교재나 심화 연구도서 외에도 다른 텍스트를 차용할 수 있습니다.

③**자기 삶의 규칙 만들기**: 3 장은 일주일 동안 실천할 유익한 삶의 규칙을 만들고 연습하는 장입니다. 아무리 매주 에세이를 쓰고 깊이 책을 읽으며 순간순간 어떠한 통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통찰을 **계속 기억하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사막에 뿌린 물이 금방 증발하듯 순간의 깨달음은 **금방 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6 개월 간의 장학생 과정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활동 3. 윤리학 공부 모임

모임 구성	1 교시	10:30~11:45	스피노자 세미나
	점심	11:45~12:45	식사
	2 교시	12~45:13:55	윤리학 or 부교재 세미나
	3 교시	14:10~15:00	모임 기록 글쓰기 or 공부 소모임

① **스피노자 세미나**: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공부하는 이 세미나는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소나무 장학회에서는 세미나의 시작을 **명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세미나에 임할 차분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 다음은 운영위원 리딩에 따른 **강독 시간**입니다. 장학회에서는 스피노자 『에티카』에 관한 해설자료(강독서)를 제공합니다. 장학생들은 당일 분량에 따른 요약 및 이해의 글쓰기 작업을 3 교시 모임 기록 글쓰기 시간에 진행하므로 강독을 꼼꼼히 따라갑니다.

마지막은 **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에티카』를 읽으며 모르겠는 부분이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상호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빠짐없이 해결합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스피노자 『에티카』의 **활용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합니다.

② **윤리학 or 부교재 세미나**: 2 교시는 장학생들의 **강의(발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 글쓰기 작업의 진도와 상응하여 **부교재 세미나와 개인 윤리학 발표**를 번갈아 갖게 될 것입니다.

장학생들은 돌아가며 '나의 『윤리학』 책 쓰기' 의 한 과정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 깃들여진 부교재의 탐구 거리는 무엇이었는지 나누는 과정, 즉 **상호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부교재 세미나는 발제와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교재인 스피노자 『에티카』와 연계되는 지점에 주목하고 '나의 『윤리학』 책 쓰기' 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가를 중점 내용으로 삼습니다.

③ **모임 기록 글쓰기 or 공부 소모임**: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시간에는 장학생 자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모임 기록 글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 소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장학생 활동을 하는 시간이며, 이 시간에 **개인적인 사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임 기록 글쓰기는 스피노자 『에티카』 강독 내용 요약 및 모임 동안 들었던 생각과 변화, 느낌 등을 훑아보며 자기 자신을 글로써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작업은 당일 자정까지 완료하여 카페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스피노자 세미나를 진행하면 할수록 장학생들은 보다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발견할 것입니다. 공부 소모임은 **공통의 심화 공부 주제**를 가진 학우들끼리 개별적으로 모여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주지하듯이 소나무 장학회의 목적은 **공부 공동체**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 개월 간의 장학생 과정은 어디까지나 이 목적을 위한 **입문과정**이지요. 그리고 소모임 구성은 공부 공동체가 어떤 점에서 나에게 유익한지 체험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활동 4. 그룹 멘토링 & 심층면담

10 월 · 11 월	12 월 · 1 월	2 월
1 단계. 자기이해	2 단계. 자기검토	3 단계. 자기교육
↓	↓	↓
11 월 마지막 주 일요일 : 심층면담	1 월 마지막 주 일요일 : 심층면담	2 월 매주 일요일 : 그룹 멘토링 & 합평회

① **심층면담**: 철학교육 프로그램은 2 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의 대주제**가 달라집니다. 이에 맞추어 장학생들은 하나의 대주제가 끝날 때마다, 지난 2 개월 간의 장학생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층면담은 장학활동에서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의미있고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입니다. 장학생들은 운영위원과 1 대 1 로 보다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장학회의 목적과 철학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면담에서는 소나무 장학회에 대한 질문과 토론뿐만 아니라, 자신의 윤리학을 위한 **개인적인 고민**까지 자유롭게 나누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심층면담은 윤리학 강독 진도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2 개월에 한 번씩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면담 일정이며 신청 또한 자율**입니다. 이 외에도 운영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많은 면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 **그룹 멘토링**: 모든 장학생들은 매주 돌아가며 지난 5 개월 간의 장학생 활동을 총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나의 윤리학 책쓰기' 마무리 과정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발표에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나는 주간 공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 왔는지, (2)세미나에는 어떤 마인드로 참여하였고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지, (3)두 활동을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윤리학』 책을 구성하고 마무리 지을 것인지, 혹은 완료된 글쓰기 작업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운영위원의 멘토링을 중심으로 다른 장학생들이 발표자의 지난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합평 시간**을 갖습니다.

## 프로그램 세부 규칙

### 【장학생 활동문화 관련 규칙】

#### 규칙 1. 전자기기 사용 금지

- ① 세미나 시간과 이후 자율학습 및 소모임 시간에는 **노트북과 핸드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 ② 세미나 시간에 필요한 자료들은 미리 종이로 **출력**해와야 합니다.
  - ☞ 개인 사무를 장학생 활동 시간에 끌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발견될 시 경고가 주어집니다.
  - ☞ 대학생들의 노트북 사용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 점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트나 메모 활용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 장학생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 ☞ 개인 사정으로 인한 노트북 사용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학생들은 이 점을 인지하고 미리 활동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2. 수평어 사용

- ① 서로의 **나이**를 묻지도 말하지도 농담 삼아 추론하지도 않습니다.
- ② 언니, 오빠, 형, 동생과 같은 **호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③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상호 반말**을 사용합니다. 한 쪽은 반말을 하면서 다른 한쪽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 나이, 학벌, 직업 등 사회적으로 구성된 배경은 잠시 내려놓고 단독자로서 서로를 마주합니다.
  - ☞ 장학생 모임에서는 호칭 대신에 **본명**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방식을 선택해오고 있습니다.
  - ☞ 단순히 oo 님이라고 부르거나 존댓말을 한다고 수평적인 문화를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지향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 규칙 3. 후배 기수 장학생 선발 참여

- ① 선배 기수 장학생들은 후배 기수 **장학생 선발 과정**에 보조로 참여합니다.
- ② 활동 마지막 달에는 **후배 기수 워크숍 기획**에 참여합니다.
- ③ 선발 보조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학별 장학처에 공고 협조 연락
- 2. 지원서 서류 정리
- 3. 대면면접 보조

### 규칙 4. 장학생 모임 운영

- ① 장학생들은 모임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돌아가며 담당합니다.
- ② 당번은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교대하며, 이름의 가나다 순서로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합니다.
- ③ 장학생 모임 운영에 필요한 실무 당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당&간식 담당: 일요일 모임 시간 때 갈 식당을 미리 예약하고 간식을 구매합니다.
- 2. 회계 담당: 식사, 간식, 생일, mt 등에 사용한 활동비 영수증을 관리하고 보고합니다.
- 3. 기록 담당: 매주 스피노자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보고합니다.
- 4. 생일 담당: 장학생들의 생일을 조사하여 생일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활동비로 구매).

## 【장학금 및 출결 관련 규칙】

### 규칙 5. 장학금 심사 기준

- ① 수료증을 받은 장학생에 한하여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FA 처리**가 되어 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은 제한됩니다.

### 규칙 6. 엄격한 학사관리 FA 제도 (Failure because of Absence)

- ① 세미나 출결 관리: 정시에 **자리에 착석했는지를 기준으로** 지각을 체크합니다.
  - ☞ 토요일 장학생 활동이 점심 식사로 시작하더라도 출결 관리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최소 10 분 전에는 미리 장학회 사무실에 도착해 있을 것을 권장합니다.
- ② 에세이 출결 관리: **게시글 등록 시간을 기준으로** 지각을 체크합니다.
  - ☞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서 규정한 **에세이 형식**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③ 지각 5 번을 하게 될 경우 FA '**결석허용 한도초과로 인한 낙제**' 처리를 합니다.
  - ☞ 운영단이 장학생이 3 번 지각을 할 경우 1 차 경고 안내를 합니다. 4 번 지각을 할 경우 2 차 경고 안내를 합니다.
  - ☞ 에세이 제출 지각과 모임 지각 간에 구별은 없습니다. 합산하여 지각 5 번일 경우 FA 입니다.
  - ☞ FA 를 받을 경우 소나무 장학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④ 세미나 참석 또는 에세이 제출에서 **15 분 이상** 지각을 할 경우 '**지각 2 번**'과 같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 ⑤ **무단 결석을 할 경우:** 사전에 방학 신청 없이 모임을 **무단 결석**하거나 에세이 **무단 미제출**을 할 경우 **그 즉시 FA** 처리를 합니다.
  - ☞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원할 경우, 장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방학 신청을 하고 결석을 해야 합니다.
-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FA 가 되었을 경우 장학생은 운영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규칙 7. 방학 제도

- ① 장학생은 총 3 번의 방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방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임 전날까지 장학회 카페에 방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③ 모임일이 추석과 설날에 겹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주 모임**을 진행하니 유의바랍니다.
- ☞ 장학생들은 본인의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방학을 현명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규칙 8. 유고결석 제도

- ① 직계 가족의 장례식, 응급 상황이나 입원, 예비역 훈련의 경우에 한해서 유고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② 이외에 공모전, 취업 면접, 대외활동, 자격증 시험, 질병 검사, 교통편 연착, 컨디션 난조 등의 사유는 유고결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학생 자격정지 관련 규칙】

### 규칙 9. 장학생 과정 탈락 제도

①**면담 단계:** 에세이 형식을 지켜 제출했을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심각하게 불성실할 경우, **에세이 관련 면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세미나 참여가 유의하게 불성실할 경우에도 **세미나 관련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 면담에서는 본 장학생이 장학활동에 성실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에게 이상의 사유로 면담을 요청할 시 장학생은 반드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②**경고 단계:** 면담 이후에도 장학생 활동에 있어서 **불성실 이슈**가 제기될 경우, 장학생 전원과 운영위원회가 **심의회**를 구성합니다. 심의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장학생의 에세이 및 세미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경고**’가 주어집니다.

③**탈락 처리:** 경고가 주어진 이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장학생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심의회 없이 **장학생 자격**을 취소합니다.

### 규칙 10. 자율적 조기종결 제도

①**조기종결 제도의 취지:** 주지하듯이 소나무 장학생 프로그램은 **운영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은 이 과정 중에서 장학회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스피노자라는 텍스트가 자신에게 크게 유용하거나 적합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장학생 스스로의 자율적 결정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조기종결 제도입니다.

②**조기종결 신청 방법:** 6 개월 간의 장학활동 기간 중에서 **2 개월 간격**으로 **총 두 번**의 조기종결 신청을 받습니다. 활동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기간 외에는 조기종결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조기종결을 고민할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충분히 의논**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 **1 차 신청기간: 10 월 마지막 주**

☞ **2 차 신청기간: 12 월 마지막 주**

## 부록

## 【부록 1】 지원자 숙고사항

### 나는 나 자신의 이성을 교육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가?

철학의 근본 주제는 **있음(존재)**입니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의 **있음(존재)**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의 **있음(존재)**을 문제삼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 길 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길에 있을 것인가? 나의 인생에 자유가 있는가, 자유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너와 나 사이에는 진실로 우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정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러 없어질 것이라면, 혹은 전쟁이 일어났다면 혹은 내가 깊은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앞두고 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아직 건강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그를 앞에 두고 나는 어떻게 있는 것이 좋은가? 내가 이 학교에 혹은 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이 가정에서 이런 부모로서 혹은 이런 자녀로서 있어야 할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곳에서는 시위가 벌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누구로서 있어야 하지? 시민으로서 있겠다면, 시민으로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저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있어도 좋은가, 적대자로서 있어야 좋은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가능성이 있을까, 증오의 마음을 품고서 있어도 좋은가 아니면 전혀 다르게 있을 수도 있을까? 나를 유혹하고 즐겁게 만드는 이 가치와 재화들 앞에서 나는 지금처럼 있어도 좋은가? 지금의 인생 궤도에 나는 계속 머물러 있어도 좋은가 아니면 또 다른 **있음**의 방식을 모색해야 좋은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철학은 가장 구체적으로 ①**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있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②**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있으면 안 되는지**를 문제로 삼아 질문하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이러한 **있음**의 문제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이며 상호적인 문제**’로서 다룹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철학자들은 현실의 존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되, 동시에 그 현실이 모두에게 올바르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모두에게**”에 찍혀 있습니다. 철학은 개인적인 믿음이나 인생관이 아니라 **모두에게 설득 가능하고 모두가 이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 체계를 구성하는 활동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철학은 개인적인 특별함이나 폐쇄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는 보편성과 공유 가능성**을 획득해가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철학을 했던 고대 아테네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매달립니다. **보편적으로 공유 가능한** 좋음은 있는가? 이 사람에게는 이게 좋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좋은 식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는가? 즉, 철학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것**을 연구하는 사유 활동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없고 부유한 자에게만 없는 것, 이 종교를 믿는 사람에는 있지만 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 이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고 다른 취향을 가지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철학이 연구하는 있음(존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과 공유 가능성을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을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인 나의 생각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진리나 가치를 자기 자신의 고유한 경험이나 체험만을 통해서 스스로 납득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나 윤리관**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이 진리이며 가치로운가?”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진리나 가치를 발견 및 발명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철학의 전제**입니다. 지원자에게서는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철학의 전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친밀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요컨대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한 가치 체계를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보다, 내밀하고 고유한 경험에 의해서 이미 체득된 가치관과 성격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친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왜 그러한 진리를 믿으며 가치관을 갖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보다,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도의적인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윤리 체계나 가치 체계를 다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개인적인 독백 속에서 재확인하는 것을 더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믿음이 얼마나 참된지 검토하고 소통하려고 할 때** 비로소 철학은 발생합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니 소통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단념할 때 철학은 사라집니다. 물론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그렇게 있는지 따져묻고 왜 나는 이렇게 있는지 설명할 때 철학이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있어도 좋다는 것을 너는 논증할 수 있는가?** 그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성가시게도 그 믿음을 설명하고 논증해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소나무 장학생 과정은 어디까지나 **철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지원자들은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소통의 능력인 이성**을 갖고 닦으려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믿음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을 사적으로 향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 【부록 2】 자주 묻는 질문

### 【활동 형식 관련 질문】

**Q1. 장학회 운영위원이나 헤이그 학교 교사는 직업으로서 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별도의 직업을 따로 갖고서,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장학회 운영위원에 자원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헤이그 학교 교사의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생계수단으로서 직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장학생들은 구직 활동을 통해 별도의 직업을 갖춘 이후에 장학회 운영위원이나 헤이그 학교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2. 장학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취업준비 기간이나 사회 초년생 기간에도 장학회 활동을 빠지지 않고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나무 장학회는 장학생들의 경제적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회 활동과 구직 활동 중에서 구직 활동을 더 우선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취업준비 기간이나 바쁜 사회 초년생 시기에는 오롯이 개인적인 경제활동에만 집중하고, 경제적 여건이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장학회로 돌아와 활동할 수 있습니다.

**Q3. 장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소나무 장학회의 철학과 비전에는 공감이 가고 관심이 갑니다. 장학생에 지원하는 방법 말고도 소나무 장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A. 장학금 프로그램 외에도 (장학금 프로그램과 별도로) 장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모임이 있으며, 또한 장학회 운영위원회 공부모임도 있습니다. 꼭 장학생이 아니더라도 윤리학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장학회와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활동 내용 관련 질문】

Q4. 저는 문과라서 과학은 중학교 이후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할까요?

A. 장학회 운영위원 중에서도 문과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배경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겠지만,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운영위원과 다른 장학생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일 것입니다.

Q5.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 철학 원전을 읽는 작업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중서나 해설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非)전공자도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A. 지금까지 비전공자 장학생들도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중 철학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윤리학』 1 부와 2 부를 읽는 부분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일상생활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형이상학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본 과정은 어느 정도 인내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Q6.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미래의 소나무 공동체 구성원을 모집하는 것이지만, 저는 아직 소나무 장학회 운영위원이나 헤이그 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소나무 장학회가 실제로 뭘 하는 곳인지 아직 모르겠고 그런 건 제가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장학생에 지원하기 부적합한가요?

A.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부적합하지 않기도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될 마음이 선뜻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학회 역시도 처음부터 지원자가 ‘나는 소나무 장학회 구성원이 정말로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곳을 아직 잘 모를 텐데 뭘 보고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거지? 진정성이 있는 얘기인가?’하며 의아해하겠지요.

소나무 장학생 과정 자체가 소나무 장학회가 어떤 곳인지 직접 몸소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원자들께서는 처음부터 장학회 구성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생 과정을 통해서 장학회 구성원이 될지 말지 고민해보고 결정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장학회의 철학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공부해보겠다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 지원자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학회 구성원을 모집하고 양성한다’라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도외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단체 구성원이 될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것과 애초에 이 단체에 대한 관심 없이 장학금만을 보고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스로 숙고해볼 때에 자신이 소나무 장학회의 철학과 비전을 공부하는데 열정과 관심이 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반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학회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장학생 활동을 해야 하는 지원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지원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이지요.

**Q7. 저는 불교철학, 노장철학, 칸트, 플라톤, 현대철학 등 다른 철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장학회에서는 스피노자 말고 다른 철학은 공부를 안 하나요?**

A. 다른 철학자들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학 원전을 강독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한 명의 철학자만 공부하기에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스피노자를 공부하는 것이지요. 윤리학 공부에 도움만 된다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철학자들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Q8.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펼쳐 보았더니 첫 장이 ‘신에 대하여’로 시작합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스피노자 철학은 기독교 유신론 철학인가요?**

A.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했던 그 시대에 스피노자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파문을 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 니체의 말은 유명하지요? 니체는 도서관에서 스피노자의 책을 발견하고서 자신의 정신적인 선배를 만났다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스스로를 진실된 유신론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중세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비판하였지요. 그의 『윤리학』 첫 장이 ‘신에 대하여’로 시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신’을 어떤 인격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Q9. 저는 소위 “차가운 이성”이나 “냉철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생생한 감정’과 그 감정에 대한 ‘따뜻한 공감’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노자 철학을 보면 ‘이성’을 강조하고 있고, 부록의 장학생 숙고사항을 읽어보아도 장학회에서는 ‘이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학회에서는 감정이나 공감의 중요성은 다뤄지지 않는 것인가요?

A. 스피노자 철학에서 이성과 감정은 서로 대립하는 반대쌍이 아닙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종의 ‘감정 덩어리’라는 것이지요. 인간 자체가 곧 감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하는 것들 중 어떤 것도 감정과 대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이성적인 감정’과 ‘비이성적인 감정’의 대립쌍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성’은 어디까지나 설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성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지요. 이런 의미의 이성은 ‘차갑다’거나 ‘냉철하다’ 등등 이성에 관한 통념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성적인 감정은 다름아닌 ‘이해된 감정’을 의미하며 비이성적인 감정은 ‘아직 이해되지 못한 감정’을 의미할 뿐입니다.

스피노자가 이성을 강조한 이유는 다름아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혹은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사려 깊게 생각해보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